

공개된 정보

2019년 12월 1일 밤 11시 30분경, 유명 영화감독 최승배가 스튜디오 촬영장 안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시체는 천장 높이 설치된 조명 레일에 매달려 있었고, 목에는 두꺼운 전선이 감겨있었다. 주변에 사다리나 높이 올라갈 만한 물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살 같지는 않다. 이날은 심야까지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다. 촬영 중인 영화는 '뒤틀린 정원'. 교외의 대저택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비극을 그린 내용이다. 최근 영화계에서 VIP 대접을 받고 있는 명배우 조영신이 주연으로 결정되며 촬영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최승배가 죽은 것은 오후 10시부터 11시 30분 사이다. 촬영 중에는 스태프가 다 모여 있었고, 오후 10시부터 휴식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사체의 최초 발견자는 단역 배우 김주원, 발견 시각은 11시 30분이다. 스튜디오는 시가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고, 넓은 장대 숲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인이 드나들었을 리는 없다. 현장의 인원 중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총 4명. 범인은 반드시 이 안에 있다.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에 따른 타임라인

오후 10시	조민형, 최승배의 심부름으로 촬영장을 나감
	이수현, 컨테이너로 출발
	김주원, 주차장에서 대본 연습
오후 10시 10분	이수현, 컨테이너에서 쉬다가 잠들
오후 10시 30분	조영신, 숙소로 출발
오후 10시 40분	조민형, 철물점 도착
오후 10시 50분	조민형, 사다리 구입, 다시 촬영장으로 출발
오후 11시	조영신, 숙소 도착
오후 11시 10분	조영신, 촬영장으로 출발
오후 11시 30분	김주원, 촬영장에 미리 왔다가 최초로 시체 발견
	조민형, 촬영장 복귀
	이수현, 비명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뒤 촬영장 도착
오후 11시 40분	조영신, 촬영장 복귀



김주원(26)



김주원(26) 남

→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 * 비밀: '캔디걸'의 미공개 필름을 훔치기 위해 최승배를 스토킹했다.
- * 승리조건: 1. 범인을 찾아낸다. 2. 범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이지 않는다.

당신의 행적

당신은 영화 마니아이자 최승배가 10년 전에 만든 영화 '캔디걸'의 광팬이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캔디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캔디걸'을 가장 좋아한다고 믿고 있다.

당신이 영화 마니아가 된 것은 10살 터울인 형의 영향이었다. 형은 영화를 많이 보았고, 좋아하기도 했다. '캔디걸'을 보러 간 것도 형과 함께였고, 그때의 영화표 두 장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형은 나이가 들며 현실로 돌아갔다. 영화보다는 사업을, 낭만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형이 변해갈수록 당신은 반발하듯이 영화에 빠져들어 갔고, '캔디걸'에 대한 집착도 점점 위험한 수준이 되어갔다.

당신은 1년 전 이 영화에 대해 조사하던 중, 10년 전의 비극적 사건에 대해 알게 된다. 10년 전, 최승배의 조감독 J라는 인물이 자살한 것. 마니아들 사이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특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생긴 미공개 테이프가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 테이프는 통칭 'J 필름', 혹은 'J의 유서'라 불렸다. 이 촬영본은 불길한 테이프라는 이유로 실제 영화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너무나도 그 테이프가 가지고 싶었던 당신은 최승배에게 접근했다. 당신은 거액의 후원금을 바치며 그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시켜달라고 요청했고, 당신을 예술병에 걸린 졸부 정도로 생각한 최승배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 촬영 기간 동안 감독의 주변을 조사하고 때로는 가택침입도 했다. 최근까지도 최승배 감독의 일과를 감시해왔고, 로프를 가지고 다니며 감독이 자주 드나들던 장소에 침입하곤 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테이프를 찾아내지 못했고, 최승배도 조금씩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눈치다. 마음이 급해진 당신은 감독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공간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0시 15분, 조명감독 이수현이 휴게실 뒤편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수현의 컨테이너에 침입한 당신은, 이수현의 짐 가방에서 수상한 비디오테이프를 발견했다. 테이프에는 '폐기 처분'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고, 당신은 직감적으로 그 비디오테이프가 당신이 그토록 찾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둘러 테이프를 췌겨나온 당신은 가방 속에 테이프를 숨겼다. 1시간 정도 지나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당신은 숨을 고르며 촬영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겨우 침착해진 당신을 맞은 것은 최승배의 시체였다. 사체의 최초 발견자는 범인으로 몰리기 쉽다. 몰려든 사람들의 의심 섞인 눈초리도 따갑다. 겨우 찾아낸 테이프를 지키려면 범인을 찾아내야 한다.

* 추가 규칙: 당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캔디걸'의 광팬이며 최승배 감독을 스토킹해왔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다. 게임중 다른 플레이어에게 추궁당하거나 이미 들켰다 해도 무조건 부정해야 한다.

